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현동차 합격수기

#전업 수험생#독학#인터넷 강의#스터디 그룹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저는 전반적으로 학원 커리큘럼을 착실히 따라간 편이었는데요, GS1-2기 때에는 모의고사를 치르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에, 주중에 해당 범위의 내용을 단권화 책으로 2-3회 이상 정독하고, 해당 범위의 사례집 문제도 2회이상 읽어보았고, 모의고사를 치르기 직전에는 빠르게 눈으로 회독하는 형태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것으로서 공부했습니다. GS3기부터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모의고사 범위가 전범위로 확대되는 바, 지난 몇달간 (내지는 몇년간) 공부했던 부분에서 아직 암기가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책을 회독했던 기억이 있으며, 3년차 수험생으로서 다양한 문제 형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스터디원을 구하여 다양한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것도 시험장에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강의듣는 시간, 스터디원과 모고 푸는시간, 혼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매일 약 8시간 정도 지켜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기가 종료된 후,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식사시간 및 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 공부에 올렸습니다.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2022년 초시 & 2024년 현동차 모두 1차는 노단기로만 준비하였는 바, 1차 준비에 초점을 두어 이하 서술하였습니다.

민법 - 김광수 (목표점수 60 / 실제득점 65) 1차 시험을 약 2달 앞두고 광수쌤 문제집 구입 후 <문제풀이 강의> 들으며 이론 및 문풀 감각 끌어올리기 시작 / 이후 5월까지 문제집 총 2독. 5월 초 광수쌤 <최종정리 강의> 수강. 시험 전까지 문제집으로 회독을 돌리려했으나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시험일 약 10일전부터 광수쌤의 최종정리 자료만 시험전까지 무한으로 돌림. 올해 박스형 문제가 대폭 늘어나서 시험장에

서 문제를 푸는 데에는 애를 먹었지만, 광수쌤 최종자료에 있는 내용들만 제대로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반 이상은 되었다고 생각.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다면 심적으로는 더 안정된 상태에서 1차를 치를 수 있었겠지만, 2차 압박 속에서 1차는 평균 60점으로 패스만 하자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상 최선이었다고 생각.

사회보험법 - 이지영 (목표점수 60 / 실제득점 65) 4월, 딱풀 사회보험법 책 구매. 각 조문별로 역대 기출기문이 모두 들어있어 강약 조절을 하기에 매우 좋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출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지영쌤이 표로 정리하여 책에 넣어주셔서 매우 편리하였음. 혼자서 1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아 <기본이론 강의>를 배속으로 들으며 1독 하였음. 딕션도 정확하시고 강의도 지루하지 않아서 만족하였음. 5월, 딱풀 에센스 구입하여 이걸로 무한 돌리기로 결정. 시험을 약 10일 앞두고 이지영쌤 <최종정리 강의> 들으며 딱풀 에센스 책 내에서도 1) 출제가 유력한 부분 2) 나올 수도 있는 부분 3)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암기 투입을 고려할 때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 등을 추려낼 수 있었음. 시험전날까지 기본법/징수법/고용/산재 파트 에센스로 총 4-5회 정독. 건강보험/국민연금 파트는 쌤이 에센스에 암기표로 요약하여 넣어주신 부분만 수차례 눈에 바름. <최종정리 강의>에서 각 법에 나오는 00일/00명/00퍼센트 등 숫자들을 타법과 비교하여 설명해주시면서 헛갈리지 않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올해 모두에게 불의타였던 지엽적 문제들 빼고는 에센스 책 한권으로 대부분 방어가능했습니다.

경영학 개론 - 최중락 (목표점수 50-55 / 실제득점 61.78 / 원점수 65) 초시때 중락쌤 기본강의, 문풀강의, 최종강의까지 모두 수강. 중락쌤 2400제 새로 구입후, 4월 초부터 5월 첫주까지 해서 필수문제는 다 직접 풀어봄. 각 문제 해설에서 두문자로 외워야할 부분들, 키워드로 외워야할 부분들은 책에 형광펜 처리 해놓았음.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해설을 봐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문풀 강의>의 해당 파트를 틀어서 바로바로 강의를 듣고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였고, 시간 세이브에도 큰 도움되었음. 시험일이 다가오며 책에 형광펜 처리한 부분 쪽 1독하며 단순 쌤암기를 해야할 부분들을 암기카드에 적은 후, 암기카드만 시험 전까지 무한으로 돌렸음.

노동법 - 김에스더 (목표점수 75 & 75 / 실제득점 75 & 57.5) 올해에는 1차 노동법에 투자할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문제집만 몇번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생각으로 에스더쌤 문제집 구매. 문제집에 타 시험 기출문제도 담겨있어 출제경향 파악에

매우 편리하였음. 시험을 약 2주 앞두고 문제집으로 회독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에스더쌤 암기도표 책을 추가로 구매하였고, 2차와 겹치지 않는 단순암기 사항 등이 많은 것 같아 에스더쌤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하며 암기 강약조절을 할 수 있었음. 근기/노조 외 기타 잡법들도 따로 프린트물로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주셨던 점 & 최종 정리 강의에서 꼭 챙겨야하는 부분 등을 짚어주신 점이 1차 준비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 올해 노2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타 잡법에서 지엽적 문제가 많이 나와 57.5가 나왔지만 그래도 투입대비 점수를 생각할 때 만족.

■ 면접 준비 과정

3차 시험인 면접은 합격자들 사이에서 몇명의 스터디원을 찾아, 전 기수들에서부터 이어 내려오면 기출 및 예상문제를 기반으로 구술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신상질문, 노무사 직업관에 관한 질문, 노동법에 관한 질문, 기타 세부적인 최저임금이나 최신 노동이슈에 대한 질문이 지금까지 나왔었고,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 하에 스터디원들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차 시험(면접)에서 공인노무사의 공적역할, 근로기준법에 관한 질문 및 노동조합법에 관한 질문 각 1개씩 나왔으며 준비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아 조금 실망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볼때 면접 준비는 추가적 노력없이 노무사 2차 시험 합격으로 충분하고, 마음가짐 정도 정돈하고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유예때 소수점 차이로 탈락했던 것이 수험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것인 행정쟁송법에서 55점을 맞은 것이라 판단이 되고, 당시 행쟁은 1기를 동영상 강의로 수강했고, 그 전후에는 아무런 강의없이 책 회독 + 스터디원과 총 3명의 강사님 모의고사 풀어보고 자가첨삭 및 피드백 주는 형태로만 공부했습니다. 당시 3기 시점에는 아무래도 불안하여 동강을 결제했는데 결국 거의 못 들었습니다. 발표 후 점수가 납득이 되지 않아 답안지 열람도 했습니다.. 첫 문제에서부터 외운거 다 쏟아내겠다는 저의 의지가 답안에 보이더라구요. 쓸때는 몰랐는데... 전반적으로 메인쟁점에 대한 서술에 초점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관련된 일반론까지 외운거 다 때려박는 형태의 서술이 낮은 점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2문에서 답도 틀리고, 3문에서 쟁점 파악하느라 시간을 왕창 날렸던 것도 한몫했죠. 현동때에는 행쟁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강의도 1기부

터 3기까지 모두 들으며 준비에 임했고, 최종적으로 행장에서 70점이 넘는 점수로 합격하게 되어 기쁩니다.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인사노무관리는 최종락 쌤의 수업으로 3년 내내 준비하였는데요, 모고를 제출하고 채점받았을 당시에 꾸준히 상위권이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항상 59점대의 득점을 하여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공부방법 관련, 유예때까지 온침/실영상으로 들었고, 현동 때에는 동강만 수강하고 첨삭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터디원과 함께 2~3기 모의고사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본 후 자가첨삭 및 서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준비했고, 스터디원이 타 강사님 수강생이어서 서로의 모의고사 문제 및 작성스타일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개념은 두문자 따서 촘촘히 외우기보다 키워드 위주로 외웠고, 각종 절차 & 종류 & 기타 학술적 구분이 확실한 부분은 두문자를 미리미리 따두고 누락이 없도록 꼼꼼하게 외웠습니다. 중락쌤의 강의력은 워낙 유명하고, 교재도 최고죠... 다만 답안작성에 용이한 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별도로 목차집을 만들었습니다. 현동 때에는 기본서를 단권화 교재로 하여 회독하면서, 복습 시에는 목차집을 보면서 내용을 회상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올해 시험 앞두고는 목차집이 익숙해져서, 목차집을 기준으로 한바퀴씩 돌렸고 기억이 잘 안나는 부분만 기본서 열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공부했던게 시간 세이브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